

‘1초 경영’ 혁신 전도사
임인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1초 경영' EQUAL 임인배(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이 같은 등식이 자연스럽게 연상되고, 성립될 만큼 '1초 경영'의 효과는 전기안전공사 조직문화와 전 사업분야에서 메가톤급 영향력을 발휘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해 내고 있다.

임인배 사장이 안전공사 CEO에 부임한지 1년 6개월이 넘어선 현 시점에서 '1초 경영'은 전기안전공사 영역을 뛰어넘어 대학, 중소기업에서도 강연이 쇄도하는 등 가히 폭발적이고 혁신적인 전이(轉移)상황이 도처에서 연출되고 있다.

똥심 있는 강한 승부사의 모습과 귀공자 타입의 모던한 멋이 혼재된 듯한 묘한 매력을 발산하며, 인터뷰에 응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임인배 CEO를 명일동 본사 사옥 3층 사장 접견실에서 만났다.

'1초 경영'을 통한 조직문화 혁신 성과 1년 만에 수백억 적자기업을 흑자기업으로 탈바꿈

역시 인터뷰의 화두는 '1초 경영'으로 시작됐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공기업 하면 느리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끝에 나온 것이 '1초 경영'입니다. '1초 경영'이란 Speed 경영인데 단지 '빨리 빨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극대화해서 고객이 만족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남보다 빠르게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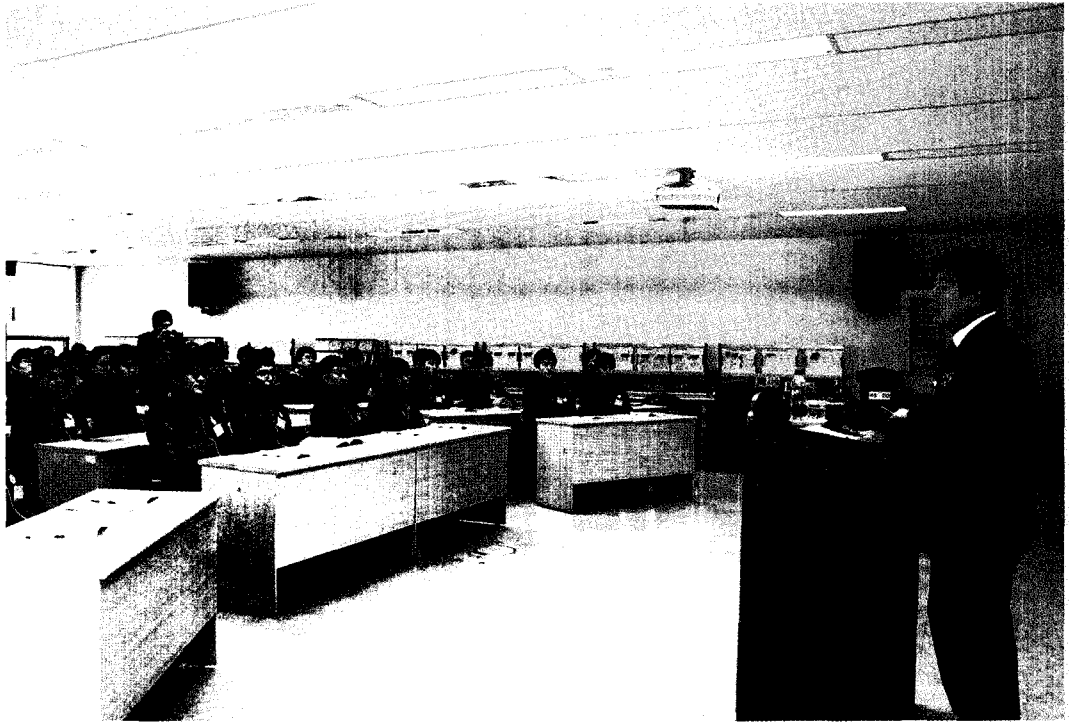
12년 의정생활에 익숙했던 정치인 출신. 그러나 이제는 '전기안전 전문기업'을 새롭게 표방하며, 1초 경영을 진두지휘하는 CEO의 모습이 더욱 잘 어울리는 임인배 사장이다. 우리 사회 파워그룹인 정치세계와 전혀 다른 별세계일 수도 있는 공기업 수장으로서의 그가 전기업계에서 일으키는 변화의 위력이 자못 대단하다.

한마디로 '성공적이고 놀라운 변신'이라는 외부의 평가와 시선을 통해 그가 추진해 온 강력한 개혁의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저 단순한 변화추구가 아닌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 개혁이기에 그만큼 '상큼한 변화'로 전기계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1초 경영'과 '스피드경영'으로 함축되는 혁신을 통한 경영효율화 성공 사례들.

심각했던 조직 부채 600억원 청산을 통한 흑자전환, 블루오션인 해외사업진출을 통한 신규수익 30억원 창출, 700여 공공기관 및 기업들과의 전기안전에 관한 MOU 체결과 이를 통한 수익 다변화 등.

이 같은 경영효율성 제고노력과 함께 스피드 콜, 비즈니스 콜을 통한 '정전', '안전점검' 등 전기안전



1초경영 강연

체제 저변확대에 집중했던 현장경영이 더해짐으로써 임인배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18개월여 만에 만들어 낸 괄목할만한 우수 성적표이다.

12년간 정치무대에서 활동하다 전기안전공사의 사장으로 취임하니 참 많은 것이 낯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공사 사장 자리를 제안 받을 당시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만, '할 수 있다'는 도전정신으로 이 자리를 승낙했고 사장에 취임한 후로는 정치와는 또 다른 경영의 매력을 느끼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치는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 확연히 드러나는 분야가 아닙니다. 하지만 경영은 실적이란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수백억 원의 만성적자 공기업을 흑자 공기업으로 바꿀 수 있던 것은 전 임직원들이 합심해서 1초경영을 실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초부터 우리 회사를 세계최고의 KESCO로 만들기 위해 1초 경영을 선포하고 1년 동안 실천한 결과 수상도 많이 했습니다. 올 연초엔 "한국윤리경영대상" 종합대상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도 안았습니다. 모든 공기업이 변해야 나라가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1초 경영의 추진으로 지난 1년간 창출해낸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임인배 사장의 목소리 톤은 한층 높아졌고, 성취감과 자신감이 진하게 묻어났다.

우선, 1초 경영을 추진해서 실시한 결과 600억 원의 적자회사가 1년 만에 흑자회사로 돌아선 것이 가장 결정적인 성과입니다. 2013년까지 심각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1초 경영을 실천한 결과, 계획대비 2년여를 앞당겨 달성하는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잘 따라와 준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해 동안의 경영을 검증받는 가장 공신력 있는 지표인 정부경영평가에서 감사검증기관 1위와 함께 정부고객만족도평가에서도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1위에 선정된 것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1등을 했다는 것은 정부와 고객으로부터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자부합니다.

지난해 혁신과제 99% 이상 개선 해외 안전진단사업 미래준비 핵심사업으로 육성... 국내 전기기술의 세계표준화 기여

1초 경영 독려차원에서 '1초 경영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매주 관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직접 챙겼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99%이상 개선되었고, 올해에는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경영효율화와 공기업 선진화에 더욱 앞장설 계획입니다.

공기업의 엄청난 부채가 이슈화되고 있는 요즘 짧은 기간에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에서 수백억 적자를 흑자 공기업으로 반전시킨 비법이 궁금했다.

전 직원이 1초 경영을 이행하고 실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곳에 와보니 부채만 600억원인 실정이었습니다. 수익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정기점검 및 검사,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흑자구조로 개선하겠다고 맘대로 수수료를 인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사업으로 해외사업 진출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해외사업을 전담하는 성장동력본부를 신설하고 국내 기업들과의 MOU 체결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총 700여개 공공기관 및 기업들과 전기안전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24시간 기업 긴급출동 서비스인 비즈니스콜 제도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안전진단 수주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 수익구조가 크게 개선된 주요 요인입니다.

지난해 전기안전공사의 수익구조 개선에 큰 역할을 한 것이 해외진출 사업이다. 신 성장동력으로 해외 진출사업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를 들어봤다.



스피드콜 긴급출동

해외 안전진단사업을 공사 미래준비 핵심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오만 등 9개국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주하였으며 몽골, 베트남 등 개도국에 전기안전 기술교류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국내건설 등과 MOU를 체결하고 동반 진출함으로써 해외사업으로만 지난해에 30억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아시아권 국가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통해 국내 전기안전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진단 등 전기안전 컨설팅 사업을 현지에서 펼쳐나가고 있는 등 국내 전기기술의 세계 표준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고 있는 전기안전공사의 경쟁력으로 임인배 사장은 전기안전 전문기업으로서의 수준 높은 기술력을 우선 꼽았다. 단적인 예를 들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 에버랜드에서 지난 해 전기사고가 발생했는데, 그쪽 엔지니어들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아 우리 공사로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직원들이 파견돼 1시간 만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전기시설이 들어차 있는 대형선박 전기안전 검사의 경우, 최근까지도 외국 업체에서 도맡아 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 기술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이 역시 지금은 우리 공사에 일임해 처리하고 있을 정도로 대외적인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몽골의 전기기술자들을 초빙해 교육사업을 펼친 적이 있는데 그들이 이번에는 자기비용 부담으로 다시 한 번 한국을 찾을 정도로 만족하고 있어 우리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큼니다.

안전공사 최초의 해외사업소 개설 예정 친환경사업 등에도 적극 동참

임인배 사장은 1초 경영 2기를 맞아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고 자축해서는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현안에만 몰두하면 2~3년 후에는 더 이상 새로움이 없는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해서 고객 가치 혁신과 미래준비는 계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에게도 각자의 기술력 배양, 허위점검과 부실 점검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 열정이 넘치는 기업문화 재정비 등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공사가 '세계 최고의 전기안전 전문기관'으로 우뚝 서는 장래의 어느 날, 안전공사가 받는 영예의 자리에서 개혁적인 경영을 통해 오늘의 전기안전공사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인물로 또한 '1초 경영 전도사 CEO'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 대목에서 임인배 사장의 승부사적인 욕심과 단호하고도 자신에 찬 결의가 읽혀졌다.

한편 2010년 전기안전공사가 역점을 두고 펼쳐나갈 분야로 흥미롭게도 '해외지사' 개설을 꼽았다.

올해는 활발한 해외진출로 사업 확대를 구상 중입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의 현지 공장 또는 대형선박에 안전진단 실시 등으로 수익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두바이에 현지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해외 전기안전 인프라구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교육사업 역시 꾸준히 추진 중인데 몽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공사의 전기안전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이미 포화상태가 달한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이 우리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기안전공사의 기술이 세계표준이 되는 그 날까지 열심히 뛰어다닐 각오입니다.

이 밖에 공사가 최근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친환경 관련 사업참여에 있어서는 지난해 시범 실시한 지능형 홈 분전반(H-SCP)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IT와 결합한 예방중심의 전기안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지능형 홈 분전반은 원격지에서 전기설비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도 이상 유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어 차세대 전기안전 점검의 모델입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현재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Smart Grid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에 대한 완벽한 검사 수행을 통해 보급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며, 옥외용 LED, 분산형 전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 등 차세대 그린에너지 기술에 대한 전기안전성 평가기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KEA

interview ● 일문일답

경영인으로 변신, 공기업 CEO로 취임하신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이후 가장 역량을 쏟으신 분야와 올해 중점추진사업 분야를 꼽으신다면

‘1초 경영’ 과 같은 과감한 혁신시스템이 절실했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실천해야만 급변하는 시대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고,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공기업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도 남보다 한 발 더 앞서 뛰겠다는 의지와 실천력이 있어야 국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인정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올해에는 가장 먼저 직원 복지후생에 앞장설 것입니다. 자가 사옥 건설 및 리모델링 등에 총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KESCO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높여주는 등 근무환경 및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경영효율화도 크게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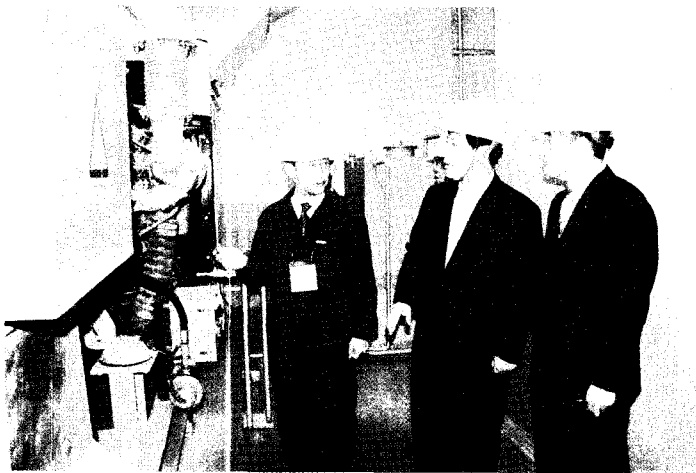
다음으로 해외사업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수익극대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필리핀, 카타르, 두바이 등 발전 전망이 높은 개발도상국가 정부와의 MOU를 통해 전기안전 기술 수출에 매진할 것입니다. 특히, 공사 창립 36년 역사상 최초로 해외지사를 두바이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안전 정밀진단, 현지 교육사업 등 사업의 다각화에 주력해서 수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에 이어 ‘허위검사와 부실점검’ 을 뿌리 뽑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10년을 부실점검 추방의 원년으로 삼아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을 정착시켜나감으로써 차원 높은 투명성을 갖춘 청렴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조직방침과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될 경우, 과감히 퇴출시킬 것임을 재삼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부담감 때문인지 현재 직원들이 모두들 제 몫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리를 추구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전기안전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현재 18~19%대인 전기화재 점유율을 선진국 수준인 10%대 초까지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해외사업 분야에서만 30여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셨는데, 전기안전공사가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추진하시고자 하는 분야가 있다면

해외진출 국내 건설기업 등과의 업무협약체결



현장경영

및 동반진출 등을 통해 지난해에만 30억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국내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신개척지인 해외로 눈을 돌린 발상의 전환이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아시아권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기술교육사업에서도 수익을 창출해 냈습니다. 올해에는 기존 수행 해외사업의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갈감과 동시에 '해외안전진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안전공사의 미래 핵심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회사는 특별한 생산품이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과의 MOU체결을 통해 안전진단을 해주고 그에 따른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삼성그룹의 경우, 1년 기본검사 수익이 10억 원 정도 됩니다만,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한 삼성에서 안전진단을 요청해와 3개월에 한번씩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전기산업계에도 '혁신'의 바람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사장님께서 펼쳐 나가고 계신 혁신과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1초 경영'을 통해 어느 정도 정착된 조직문화와 시스템이 조화를 이뤄가면서 직원들의 1인당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공기업선진화'라는 국가적인 정책과제의 일선수행자들인 우리 직원들이 잘 호응해 가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직원 3,000여명 중 평가를 통해 가려진 하위레벨 3%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명퇴'라는 극단적인 방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개인, 그리고 우리 전기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개혁의 변화는 지속 반복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합리적인 신상필벌을 통해 직원들의 생산성이 증대되는 것을 볼 때 적절한 동기부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피드'와 '공격경영'으로 대변되는 경영방침과 실천력이 전기안전공사 조직 위상과 변화를 가져왔다는 시각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조직내부의 반응은

전기, 안전, 치안 등을 책임지는 회사는 직원들의 '금지 심어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지'가 없으면 앞서 말한 '허위검사 부실점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과 생명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국가가 진정한 선진국이고, 그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안전'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공기업이 '최고의 기업'이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것은 선진국이 될수록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비례해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강조한 스피드 경영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젊은 고급인력들로 우리 조직이 채워지면서 회사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선하고 분발하고자 하는 의욕도 이전보다 훨씬 많아진 듯 하고, 회사에 대한 자긍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머지않아 회사의 뺨지를 달고 당당하게 전기안전공사의 신분임을 밝힐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기계의 발전에 대한 제언이나 전기인(차세대 전기인 포함)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한전, 전기안전공사, 협회, 학회 등이 모두 한 방향, 즉, '전기계 발전'이란 큰 목표를 함께 지향해야만 전기로 인해 진정한 의미의 밝은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영역별로 전문화, 특성화된 각자의 포지션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은 당연해 보이지만, 참여한 대립이나 소모전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전기'라는 대승적 차원의 공통분모를 인식한 채, '전기산업발전'이란 골인지점을 향해 '최상의 하모니'를 전기인 모두가 연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EA